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최윤정	학과(전공)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위과정	학사과정	학번	20200660
파견대학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파견(참여)기간	2024.06.26 - 2024.07.27
파견 프로그램명	NTU GEM Trailblazer Summer Program		

1. 출국 전 준비사항

A. 프로그램 지원과정

학기가 시작된 후, KAIST portal 공지사항에 CAMPUS Asia 공지가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공지사항이 올라온 후 참고해서 준비해도 문제가 없지만, 영어성적은 작년도 공지사항을 참고해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졸업요건을 위해 준비했던 토익 결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CAMPUS Asia는 토플 뿐 아니라, 공지사항에 올라온 조건을 만족하는 영어성적이 모두 인정되니 공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문 자기소개, 영어성적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듣고 싶은 과목도 정해야 합니다. 난양공대 summer program 홈페이지에서 각 과목의 실라버스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강의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하게 작성해두겠습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간단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지원하게 된 이유, 난양공대로 파견을 가고 싶은 이유 등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간단하게 영어 면접도 진행되었습니다.

교내 선발이 완료된 후, 난양공대로 다시 한 번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난양공대 측에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지원링크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는 따로 에세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었고, 정보들을 작성하면 되는데, 중간중간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난양공대 측에 이메일로 여쭙보면 하루 이 내로 빠르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름프로그램 최종선발결과는 5월초에 나왔고, 메일을 받고 7일 내에 최종적인 정보 입력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됩니다. 저는 최종선발 후에 비행기표 결제를 곧바로 하고, 항공편 정보를 바로 입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때 입력하는 대부분의 정보(항공편 포함)는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름과 사진은 꼭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잘못 입력되면 학생증 재발급 비용까지 추가로 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대부분의 중요한 공지는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파견 직전학기에 오는 메일을 꾸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지 외에도 줌세션이 주기적으로 열리는데, 이때 참여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곧바로 답변을 해주셔서 줌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빠른 소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양공대에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중요한 공지를 해주십니다. 파견 대학에서의 공식적인 공지, 국내 타대학 학생들과의 커넥션 등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국전에 깔아서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싱가포르에서는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름 프로그램은 2주/4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파견대학 측에서도 무비자가 가능한 나라의 학생들은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봄/가을에 한 학기 파견가시는 분들은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유무와 관계없이 싱가포르 입국 전에는 입국 3일 전~출국 전 기간에 '싱가포르 입국카드(SG 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상태, 싱가포르 내 숙소 주소, 항공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미리 작성해두면, 싱가포르 입국 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처럼 자동으로 본인 확인하는 게이트 하나만 통과 후 입국이 완료되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입국이 진행되어 편리합니다.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한국-싱가포르 항공권은 대부분 밤에 출발해 아침 일찍 도착합니다. 저는 한국 항공사를 선호해서 대한항공에서 왕복 70만원대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면, 대학생 대상으로 10% 할인, 추가 수하물, 무료 예약변경이 가능하다는 혜택도 있고, skyscanner로 잘 비교하고 구입하신다면 더 낮은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인터넷에 여행자보험을 찾을 때 나오는 사이트를 모두 들어가 가격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대부분 한달기준 2~3만원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행국가를 싱가포르로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싱가포르와 가까운 나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세계가 커버되는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선택한 보험은 휴대폰 손상에 대해서만 커버가 되고, 분실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이었었는데, 약관을 잘 읽어 보신 후, 필요한 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견대학 측에서 가입해주는 보험도 있는데, 2024년에 가입되었던 보험은 입원할 시에만 사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보험은 사용할 일이 잘 없긴 하지만, 이왕 가입하

는 보험이니 필요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학교에서 가입해주는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난양공대 여름프로그램에서는 지원시 선택한 과목이 그대로 수강신청 되어서 따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기가 많은 data/ai 관련 강의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지원이 끝나갈 때쯤 신청하는 학생들은 해당 과목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CAMPUS Asia 담당선생님께서 안내해주시는 기간에 맞춰 지원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data/ai 관련 교과목을 신청할 경우 지원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학업 관련 (A. 강의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강의는 오전/오후로 나뉘며, 오전은 9시30분~1시20분, 오후는 2시30분~6시20분에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이 길게 보이지만, 실제로 딱 채워서 수업하시지는 않았고, 중간에 휴식 시간도 1~2번 주셔서 크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강의는 격주로 월수금/화목을 번갈아가며 진행됩니다. 첫 주에 월수금 수업을 했다면, 그 다음주에는 화목에 수업을 하는 식입니다.

과목을 결정할 때는 전공과 관련된 것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고민을 해보신 후, 각 과목의 실라버스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취소/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과제는 얼마나 많은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과목을 들으신다면, 하루에 강의를 몰아서 들을지, 매일 한 과목씩 나누어 들을지도 고민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Bioprint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s”라는 과목을 수강했고, 강의는 일반적인 형태의 lecture, 랩 투어, 실험, CAD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Bioprint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s” 책 한 권을 모두 다루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렉처 노트에는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필기를 꼼꼼히 하면 복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강의에서 사용하는 textbook은 파견대학 측에서 e-book 형태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Lecture 외의 활동인 랩 투어, 실험, CAD 실습은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각 주에 한 번씩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수 있었기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고, bioprinting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는 2번의 퀴즈, 1번의 발표, 그리고 기말고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퀴즈는 사지선다로 렉처노트의 내용을 얼마나 숙지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 15개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객관식인만큼 기술이 다루는 scale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야했습니다.

발표는 bioprinting과 연관된 주제로 5분간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2개 이상의 논문을 읽고 발표하시길 바라시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편하

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주제 예시를 들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미리 결정해도 좋습니다.

기말고사는 서술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퀴즈만큼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총 4문제였지만, 각각 소문제가 3개씩 있어서 12문제나 다름이 없었고, 각 기술의 과정, 특징, 장단점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B. 연구 참여 (연구 환경, 연구 주제, 연구 방식, 연구 결과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C. 학점 인정 (해당될 경우)

3. 비용

A. 기숙사 (숙박)

기숙사는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2인1실을 사용했고, 에어컨 비용도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다만, 기숙사 간 컨디션 차이가 커서 운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숙사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도 있고, 어떤 기숙사는 다른 기숙사에 비해 크기가 1.5배였습니다. 이와 같이 랜덤하게 방이 배정되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각 기숙사 별로 있는 사무실에서 불편 사항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Crescent hall은 방 크기가 일반적인 기숙사보다 넓고, 가운데 책장이 놓여있어 2인실이 지만 개인의 공간도 어느정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어진 편이라 깔끔했습니다. 다만, 방의 조명이 어두워 방에서 공부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Reading room이라는 기숙사 거주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부공간이 따로 있어 큰 불편함은 없이 만족스럽게 거주했습니다.

B. 식사

기숙사 내부 혹은 가까운 곳에 매점이 있는 KAIST와는 다르게, 난양공대는 기숙사별로 캔틴이라고 불리는 학사식당이 있습니다. 카이마루처럼 다양한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이 있는 형식입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주로 캔틴에서 밥을 해결했고, 제가 거주했던 crescent hall의 캔틴은 5~7달러 정도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각 기숙사별로 캔틴에 입점한 매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캔틴을 돌아보며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hall2 캔틴에서 파는 한식을 자주 먹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northspine에 위치한 koufu에서 주로 밥을 먹었습니다. 캔틴과 비슷한 푸드코트였고, 가격은 6~8달러 정도였습니다.

이외에도 맥도날드, 서브웨이, 스타벅스, 파파이스, 도미노피자가 캠퍼스 내에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캔틴보다 익숙한 맛이긴 하지만, 할인 메뉴가 아니면 최소 10달러로 비싼 면이 있습니다.

C. 기타 생활비

이외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관광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할 때는 기숙사 카드키와 학생증을 넣어다니는 카드홀이 있으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 카드홀 구매에 7달러 정도 사용했습니다.

관광에는 총 50만원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미스터코코넛, twg, 바샤커피 등의 매장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가든스바이더베이, 동물원(리버크루즈, 버드파라다이스, 나이트사파리),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명소를 구경해보기도 했습니다. 입장권이 최소 3만원으로 비싼 편인데, 입장료가 4~5만원 이상인 곳을 방문할 때는 투어패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어패스는 각 여행사 혹은 클룩과 같은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명소 몇 군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비쌌던 동물원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했고, 최저가를 검색해 확인해본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학교 캠퍼스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교내셔틀버스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되는데, 캠퍼스가 그만큼 넓어 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교내버스노선도 여러 개라서 어떤 버스를 탈지 확인하고 타야 하는데, 구글맵에서 검색하면 red, blue, green, brown line으로 타야 할 버스를 알려주니 참고해서 타면 됩니다.

캠퍼스가 시내와 살짝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인지 교내에 슈퍼, 세븐일레븐, 여러 카페, 캔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8시~9시에 닫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낮에 미리 사둬야 한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교내 시설로는 도서관, 강의실, 헬스장, 운동장,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 책상이 있어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해 앉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공강 시간에 잠시 쉬기에도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학기간이라 그런지 저녁7시면 닫아서 자주 이용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기숙사마다 헬스장도 잘 되어 있어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외에서 하는 운동을 선호해서 운동장에 자주 갔는데, 트랙도 크게 있고, 텔레그램에서 농구, 축구, 배구 할 사람을 찾아서 함께 운동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운동장 바로 옆에는 수영장도 위치해 있고, 학생증을 보여주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캠퍼스는 시내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카이스트에서 어은동까지 걸어가는 것과 다르게 시내로 나가려면 버스 혹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특별히 구경할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외출로는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쇼핑몰인 jurong point에 종종 갔는데, 외식을 하거나 옷,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에 괜찮은 쇼핑몰이었습니다.

C. 그 외 사항

5. 언어 사용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로 대부분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 친구들, 학교 직원분들, 캠퍼스 바깥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 모두 영어를 어느정도 하십니다. 하지만, 학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인만큼 교내 청소해주는 분이나 캔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중국어로 소통하시는 것이 편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주문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중국어까지 익혀간다면 언어로 인한 불편함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2024년에는 개강 전 주 수요일(6/26) ~ 종강주 토요일(7/27)까지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었고, 기숙사 거주 기간의 연장은 예외 없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숙사 입사는 기숙사별 사무실에서 온라인 서류작성을 한 후 카드키와 우편함 열쇠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입사는 사무실이 열려 있는 평일 8시~17시까지만 가능해 참고해서 비행편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항공편이었어서 공항에서 아침도 먹고 시간을 조금 보낸 후, 거의 8시에 맞춰서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게 이동했습니다.

기숙사 퇴사는 사용한 카드키와 열쇠를 열쇠함에 반납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말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 받는 카드키가 기숙사 건물 출입, 방 출입, 그리고 화장실 출입 시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녀 모두 거주하는 기숙사이다보니 화장실을 갈 때도 카드키를 짚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기숙사 내에는 TV lounge라는 휴게실,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방, 공부할 수 있는 reading room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적절히 이용하면 기숙사 내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7. 학교 생활

강의 시간외에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강의를 함께 듣는 친구들과 northspine의 koufu에서 밥을 먹고, 도서관에 가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라운지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문화를 공유하기도 하고 공통 관심사인 음악에 대해 함께 영상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여름 프로그램을 맡으신 선생님들과 엠버서더 분들이 지원할 때 진행되는 줌세션부터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더 프로그램에 애정을 가지고 질문들을 들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 날에는 학교 지리를 모를 학생들을 위해 미니 캠퍼스 투어를 준비해주시기도 하고, 첫 강의 때는 강의실까지 함께 안내해주시기도 하는 등 많이 챙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낮에는 사무실에 상주하셔서 언제든지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카이스트로 보낼 서류에 서명을 받을 때도 이 곳으로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4주라는 짧은 기간동안 진행되는 교환학생이라 그런지 따로 동아리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름 프로그램 담당부서에서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movie night, heritage trail, prata making class 등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신청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개강 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신청 기간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인기가 많았던 쿠킹클래스(prata making class), 문화에 대해 배우는 투어(heritage trail)는 빠르게 마감되니 수강신청 하듯이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prata라는 전통음식을 만드는 prata making class와 싱가포르 영화를 보여줬던 movie night에 재밌게 참여했습니다.

10. 여행 등 개인 활동

저는 강의를 하나만 들어서 평일에 2~3일의 공강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시내까지 나가려면 왕복 이동시간만 2시간은 잡아야 해서 그렇게 자주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동물원, 가든스바이더베이, 불꽃놀이와 같이 꼭 가보고 싶은 스팟을 몇 가지 정해두고 친구들과 날짜를 맞춰 다녀왔습니다. 남은 날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movie night, heritage trail 등)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으시다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꼭 하고 싶은 것만 3~4개 신청하시

고, 주말마다 여기저기 다니신다면 싱가포르를 완전 정복하고 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7월의 매주 토요일마다 national day에 있을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리허설이 있으니, 마리나베이샌즈 쪽에 가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경량 양우산이 너무 햇빛이 뜨거울 때나 갑작스럽게 비가 올 때 유용하게 사용되니 꼭 준비해서 가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슈퍼에 한국 컵라면이나 과자도 많이 팔기도 하고, 한식을 파는 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굳이 먹을 것을 걱정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 파견 소감

저에게 교환학생은 고등학교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간직했던 대학생활 로망 중 하나입니다. 준비과정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순간까지 신경 쓸 부분이 많았지만, 스스로 타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해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새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새로웠고, 궁금했던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더 알찼던 시간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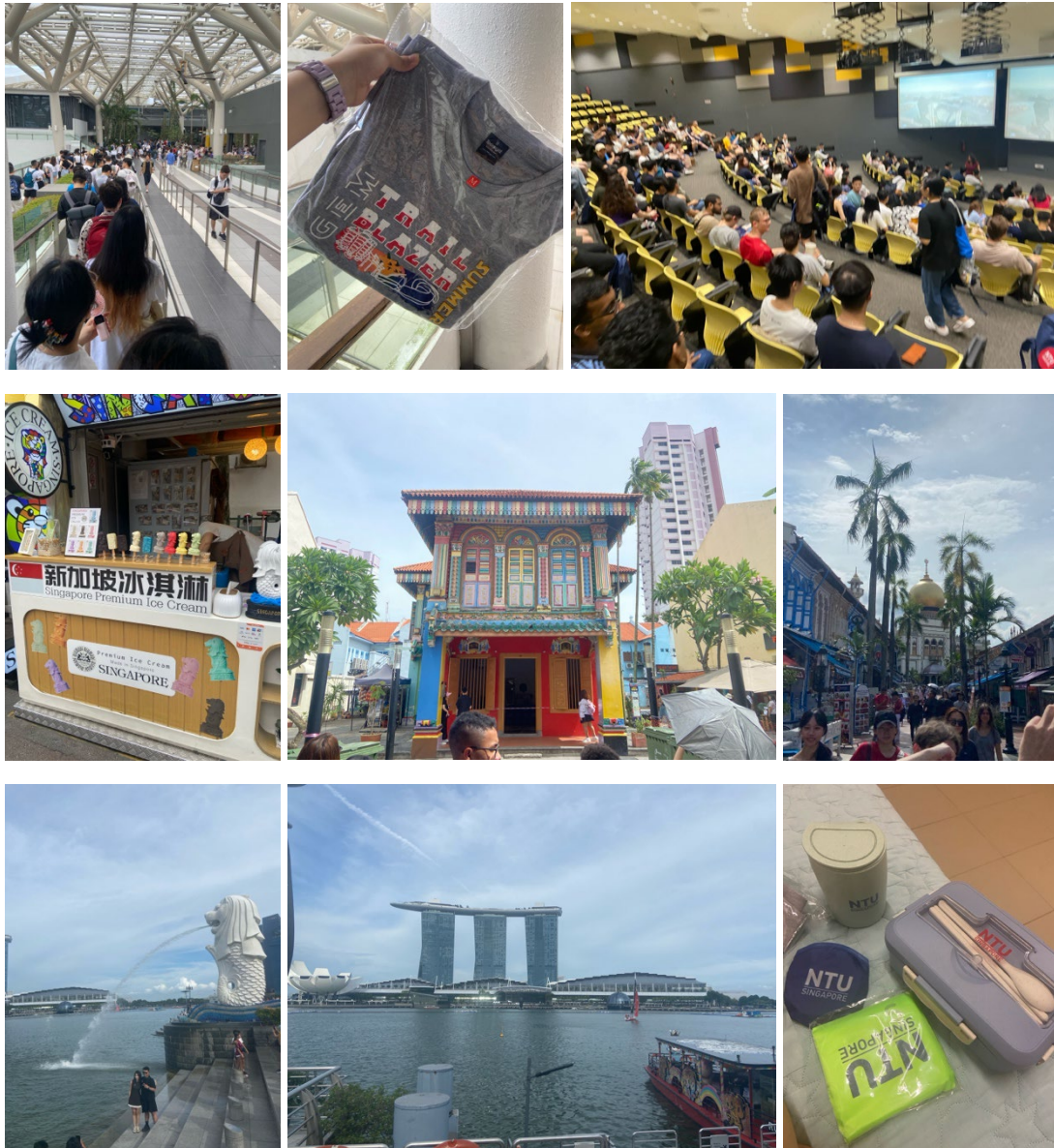
13. 사진 첨부

- 기숙사



- 오리엔테이션 및 시티 투어

CAMPUS Asia Plus Project _ KAIST Testimonial Essay _ Offline Program (Outbound)



- team building session(오리엔테이션 다음날 진행된 캠퍼스 투어 겸 팀빌딩 활동)



CAMPUS Asia Plus Project _ KAIST Testimonial Essay _ Offline Program (Outbound)



- 학교생활 및 교내활동



CAMPUS Asia Plus Project _ KAIST Testimonial Essay _ Offline Program (Outbound)



- farewell party

